

실리콘 소포제 수익성“ 바닥”

저가 선호에 군소기업 난립 ... 폐수처리용 수요증가 기대

실리콘 소포제 시장은 군소기업의 난립으로 저가공세가 지속, 과잉경쟁으로 수익성이 바닥인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이와같은 과잉경쟁은 가격경쟁으로 이어지고 있으며 사용자들의 저가 선호에 맞춰 일부기업들에서 Low Solid Content의 제품을 공급하고 있는 상태이다.

또한 실리콘 소포제는 그 특성상 소량으로 다양한 용도에 사용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러한 특성으로 수요·공급자간의 인적·물적 관계를 통한 거래가 이뤄지고 있으며 이에따라 건전하지 못한 시장 풍토가 발생하고 있다.

실리콘 소포제 시장현황 (단위 : M/T,%)				
구 분	1992		1993	
	생산량	점유율	생산량	점유율
력 키 D C	1,080	30	1,575	35
동양실리콘	720	20	900	20
청 산 화 학	720	20	900	20
O S I	360	10	450	10
기 타	720	20	675	15
합 계	3,600	100	4,500	100

관련업계에서는 이러한 이유가 군소 기업이 난립하는 배경이기도 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93년 시장은 92년과 비교해 별다른 변화를 나타내지 않고 있는 가운데 전체 수요량은 92년 3600톤의 약 25%정도 증가한 4500톤을 약간 상회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생산현황을 보면 력키가 대략 35%인 1500여톤, 동양실리콘 20% 900여톤, 청산화학 20% 900여톤을 생산, OSI, 한국신에츠, 기타 군소기업등에서 나머지 부분을 생산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특히, 청산화학은 폐수처리용 소포제에서 급성장 점유율을 높여가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실리콘 소포제의 용도는 폐수처리용으로 40% 정도가 사용되고, 섬유공정용 제지공정용·케미칼프로세싱용으로 각각 20% 정도 쓰이고 있다.

최근의 수질오염문제의 대두와 환경규제의 강화로 폐수처리용 소포제의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으나 아직은 눈에 띄는 증가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 이유는 소포제를 사용한다 해도 수질오염이 완전히 해결되는 것은 아니지만 이것보다는 폐수처리 공정을 바꾸고 비실리콘계도 사용함으로써 실리콘 소포제 사용을 줄이는 현상까지 나타나고 있는 것에 기인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그러나 폐수처리에 가시적 효과가 뚜렷한 실리콘 소포제의 사용은 증가할 것이 확실시된다.

현재 실리콘 소포제 시장은 과잉 경쟁으로 수익성이 거의 없는 실정으로, 국내 수요의 증가보다는 중국 시장 선점을 통한 수요 확보에 큰 기대를 걸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화학저널 1994/5/2>

